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흉부 CT에 인공지능 기능
진단 정확도 높여

03 이모저모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한
환자경험 히어로 발대식

05 유튜브 들여다보기

개원 67주년 기념 이벤트
우수 댓글 모음

08 특집기사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학교를 놀이판으로”



‘환자경험 히어로’ 발대식,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문화 정착 위한 임직원 다짐

가천대 길병원은 4월 28일 ‘2025년도 환자경험 히어로(Hero)’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환자경험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원내 리더들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원내 개선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캄보디아 간호학생 초청 연수 실시

캄보디아 국립대학 국제간호학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선진 간호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가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주요 임상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일보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인터뷰

청년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비결은?
“‘학생은 왕’ 여기며 학교를 놀이판으로...내가 더 설레더라”

기사 전문 8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AI 기술 활용해 흉부 CT 영상 자동 분석 솔루션 도입 폐, 심장, 대동맥 등 주요 장기 동시 분석, 판독 효율 높여



가천대 길병원은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AI-라드 컴패니언 흉부 CT(AI-Rad Companion Chest C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통해 흉부 CT 영상을 자동 분석해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여주는 AI 기반의 흉부 CT 영상 분석 솔루션이다. 폐 질환 뿐만 아니라 흉부 C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장, 대동맥, 척추 등 주요 흉부 장기까지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병변의 조기 탐지가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AI 기반의 진단 보조 솔루션을 이용한 영상 판독의 진단 정확도, 신뢰도 향상 △각종 장기 및 조직의 자동 분석, 측정 및 리포트 생성이 가능해 졌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진단 자동화 기술의 활용으로 폐질환 등 임상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캄보디아 간호학생 초청 연수 실시



캄보디아 국립대학 국제간호학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4학년 학생 8명과 교수 1명 등 총 9명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해 선진 간호 시스템 연수를 받았다.

연수생들은 수술실, 마취회복실, 중환자실, 병동, 응급의료센터 등 임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천대 길병원의 전문적인 간호시스템과 인력, 시설 등 전반을 경험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1960년대 가천대 길병원의 모습을 재현한 이길여산부인과 기념관을 방문했다. ‘봉사와 애국의 정신’으로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이길여산부인과 사례를 통해 캄보디아의 의료발전을 위한 간호 학생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금숙 가천대 길병원 간호본부장은 “예비 의료인인 간호학생들이 가천대 길병원의 우수한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통해 캄보디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인력들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메존스홉킨스메디슨,
의료진 연구 교류 및 교육 협력 논의 (4/23)

존스홉킨스 국제의료 총괄책임자 등 방문



상종 구조전환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협력병원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4/23)

외래, 입원 의뢰, 회송 프로세스 등 공유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올메이드와 협약
의료기기 제품 상용화 등 전주기 협력 (4/21)

방광암 진단 분야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 협력

가천대 길병원, 환자중심 병원문화 이끄는 2025 '환자경험 히어로' 발대식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문화 정착 위한 히어로 역할 다짐



가천대 길병원은 4월 28일 오후 응급의료센터 가천홀에서 김우경 병원장, 이선훈 행정원장, 정경진 외과계진료부장, 안정열 고객만족실장, 이금숙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환자경험 히어로(Hero)' 발대식을 개최했다.

'환자경험 히어로'는 환자경험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원내 리더들로, 환자접점부서 부서장, 관리자 등 96명이 히어로로 활동하게 된다.

히어로로 선발된 직원들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통한 환자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병원 방문, 검사, 수납, 입원,

퇴원 등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히어로들은 최상의 환자경험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부서 간 협력을 다짐했다. 히어로들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을 선서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직원들이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 부분에서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환자경험 히어로들이 잘 점검하고, 개선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동은 교수

이준우 교수

김예원 교수

안과 남동은·이준우·김예원 교수팀,
고도근시 망막병증 새로운 수술법 발표

대한안과학회 비디오 학술상 수상 (4/4)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제로 남동구보건소 강자

박정용 센터장, 호흡기 건강과 예방 관리 위한 강연



영상의학과 최승준 교수팀, 인공지능 기반
대장암 간전이 환자 치료 반응 예측 모델 개발

기계 학습 '라디오믹스 모델' 활용



해외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을 위한
몽골 현지 의료봉사 실시 (4/21~24)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130여 명 현지 진료



가천대 길병원 장애인사업장 가천누리,
장애인의 날 기념 공예작품 전시회 개최

굿즈, 영상 기획 및 제작 통해 장애인 재능 개발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선학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연계분야 협력 MOU 체결 (3/25)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논의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060-700-0700
전화료 3,000원

경선영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다희 씨는 당시) 체중이 20kg 중반이라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경선영 교수**

EBS <나눔 0700> [3/29]
뇌수막염 후유증, 뇌전증 치료 환자 사례

060-700-0700
전화료 3,000원

김유진
성형외과 전문의

(김다희 씨의) 육창의 크기는 10cm 이상으로 큰 상태이고

▶ **성형외과 김유진 교수**

EBS <나눔 0700> [3/29]
뇌수막염 후유증, 뇌전증 치료 환자 사례

백진욱 피부과 전문의

전문의 피부 관리 습관은?

▶ **피부과 백진욱 교수**

KTV <생방송 대한민국> [4/2]
전문가가 추천하는 피부 관리법

김병준 교수
가천대 의대 내과학교실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3]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배승민 교수 /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EBS <뉴스12> [4/9]
지나친 조기교육의 부작용

함승현 교수 /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소음성 난청은 굉장히 큰 소리가 청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청각의 경우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현 교수**

SBS <모닝와이드> [4/11]
소음성 난청

이길재 /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안전띠를 안 하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더라도 에어백 주위로
다른 손상이 된다면 머리부터 여러 관절

▶ **외상외과 이길재 교수**

KBS <재난안전 인사이드> [4/20]
교통사고, 안전띠의 중요성

서희선 교수
가천대 의대 가정의학과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23]
백세 장수를 위한 물 건강법

방사선종양학과 성기훈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성기훈 교수**

TBN교통방송 <닥터히어로> [4/3, 10]
유방암 방사선치료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교통방송 <스튜디오1005> [4/24]
인천시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

비뇨의학과 정경진 교수

▶ **비뇨의학과 정경진 교수**

KBS <살림하는 남자들> [4/26]
남성 출연자들의 비뇨기 건강

The Brooming
신경의 실험 천대일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

일교차 큰 봄, 면역력 저하로 뇌졸중 위험 커질수도

▶ **신경과 장대일 교수**

중앙일보 <면역력 저하와 뇌졸중> [4/7]
봄철 뇌졸중 주의해야

경향신문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107면 기록특집

‘폭삭’의 관식이 쓰러뜨린 암... 포기 마세요

▶ **혈액내과 이재훈 교수**

경향신문 <다발골수종 치료 성과> [4/11]
20년간 치료 성과 크게 발전, 장기생존 가능

인천일보
1면에서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

▶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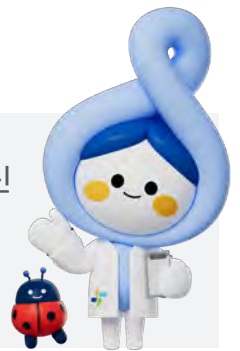
인천일보 <암생존자 칼럼> [4/16]
남성 암환자들, 불안함 떨쳐야

LIVE

길병원TV '개원 67주년 응원 댓글'

이벤트 우수 댓글 소개

가천대 길병원 개원 67주년을 맞아 3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유튜브 길병원TV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댓글 중 우수 댓글을 소개합니다.



@KDKDKDKD_1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길병원 다녔는데 벌써 67주년이에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의료 혁신을 선도하며, 꾸준한 연구와 발전을 통해 미래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롭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한걸음 더 성장하는 길병원, 길병원TV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yeeony-dy

(길) : 길병원 개원 67주년 축하드립니다~!
(병) : 병원중의 병원은 역시 길병원!!!
(원) : 원래부터 저한테는 길병원만 보였다고요.



@라미란로즈-w1u

(가) : 가슴 뛰는 도전으로 시작한
(천) : 천 개의 별처럼 빛나는 의료혁신
(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은 바로 길병원
(길) : 길이 남을 67년의 헌신과 신뢰
(병) : 병든 몸과 지친 마음까지 치유하며
(원) : 원대한 내일을 향해, GIL과 함께 나아갑니다.



@worldgreat1004

6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선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와 전문적인 케어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인천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정연유-y3j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희망이 필요하면 희망을 심어주는 진짜 병원 길병원! 앞으로도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길, 지역사회에는 사랑의 길,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행복의 길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100주년까지 쭉~ 건강하고 빛나는 병원이 되길 바라며, 길병원의 앞길에 무한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농앙-p1c

1958년 이길여 산부인과의원부터 시작하여 지금 2025년 가천대 길병원까지 67년의 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항상 이렇게 오랜기간 운영을 한 병원들은 특징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희생정신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길병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료진들의 고된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향후 100년 아니 200년까지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허주원-c6k

환자와 함께 걸어온 67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응원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오랜 역사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어 주세요!

가천대, 배터리 미래기술연구원 설립, 배터리 기술의 허브, 배터리기술 선도 연구, 글로벌 인재 양성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4월 11일 대학 가천컨벤션센터에서 ‘배터리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세계 TOP 10, 국내 1위 초일류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초대 배터리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는 신영준 전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CTO·최고기술책임자)를 임명했다. 석좌교수로 영입한 신교수는 리튬항 전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산학협력을 이끈 국내 배터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행사는 △신영준 연구원장의 연구원 소개 및 비전 발표 △이길여 총장 등 주요 인사의 축사 △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영준 연구원장은 연구원 소개 및 비전 발표에서 배터리 미래기술연구원은 배터리 미래 기술의 허브로 △산학연 협력 강화 △연구기반 강화 △실용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배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일류 연구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KETI와 미래 기술 공동 연구, 실무형 교원 초빙 등을 통해 실질적 산학연 협



력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소재·전지설계·고도분석 분야 신규 교원을 현재 28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초빙하고 산학협력관 신축 및 공동 분석 장비 구축 등 연구기반도 강화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트렌드 기반 커리큘럼 개발, KETI의 파일럿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용성과 국제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가천대는 지난 2022년 학부에 배터리공학전공을

신설해 2023년 첫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 집약적 교육을 통해 배터리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장 미려형 실습실, 드라이룸(dry room) 등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 교육환경도 조성했다. 2023년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배정에서 50명을 증원받아 정원도 10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2022년 정부 부처협업형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 및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 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가천대 의과대학, 전통한옥 교육관 ‘가천재’에서 외국 의대 교환학생 대상 전통 다례교육 실시



가천대학교는 4월 22일 국보급 전통한옥 교육관인 가천재에서 가천대 의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 의대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차와 예절을 전

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인 한국차 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가천대 석좌교수)은 6명의 외국 의대생들에게 직접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 예절을 통한 바른 인성과 몸가짐 기르기를 교육했다.

학생들은 절하기에 앞선 손가짐 자세, 절하기, 생활다례 체험하기, 한복 바로입기 등을 배우고 형형색색의 맛깔스러운 다식을 맛보았다. 체험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한국식 절이 어려웠지만 한국의 전통을 알 수 있는 색

다른 체험이었고, 예법을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행위가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소연 이사장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깃든 한국의 차 문화를 미래의 외국인 의사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차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3월부터 12월 까지, 4주 또는 8주 과정의 해외 의대생 대상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천대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생활 방식을 가진 30~40여 명의 외국 의대생들에게 가천대 길병원에서의 의학 실습은 물론, 한국 문화와 사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지진피해 미얀마 출신 유학생들에게 긴급 장학금 지급 심리상담 창구 운영, 가족 연락지원 등 학생 전방위 지원

가천대학교는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 피해와 관련, 가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긴급 지급키로 했다. 총액은 1억2천3백여만원으로 학생들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천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과

정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창구 운영 △가족 연락 지원 △학업 유연성 확보 등 피해 유학생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 운영 중이다. 가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출신 유학생은 총 619명으로 △한국어교육센터 367명△학부 225명△대학원 27명이다.

이달의 환자경험 우수상

우수 교수



심장내과
최성화 교수

의사영역 4개 영역
최고 점수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회진알림특
높은 참여율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

회진알림특
높은 참여율

우수병동/부서



암108병동

환자경험설문조사결과 1등

응급10층병동

환자경험설문조사결과 순위 항상 최고

응급7층병동

환자경험설문조사 참여율 최고

두잉씨엔에스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에 기여

고객의 소리



산부인과 이승호 교수

갑작스러운 고열로 입원해 골반염을 진단받고 이 교수님께 농양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놀라고 힘들었는데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이승호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소를 다치게 될까봐 심란한 마음이 컸는데 아이를 꼭 갖고 싶은 인생의 꿈도 지켜 주셨습니다. 신00님



외과 최재봉 교수

남편이 갑상선암을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발진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과 간호사님들이 밤새 잘 살펴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화진이 아닌 날에도 상태를 봐주시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어요. 길병원에서 수술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00님



여성전문센터 서지오 간호사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인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켈로이드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셔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병동의 간호사님들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00님

친절 우수 직원

2025년 3월 4주차~4월 3주차

부서 I (본)10B병동, (본)5A병동, (본)5B병동, (본)7B병동, (본)9A병동, (암)108병동, (암)128병동, (암)148병동, (암)169병동, (여)7층병동, (인)106병동, (인)136병동, (인)146병동, (인)166병동, VIP건강증진센터, 내과계집중치료실1, 내과계집중치료실3, 분만실, 인공신장실, 주사실, 피부과외래

진료부 I 가정의학과 황인철 비뇨의학과 김광택 산부인과 김석영, 이승호, 전승주 소화기내과 김연석, 이한나, 한영현 신경과 노영 신경외과 김명진 심장내과 양태일, 최성화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건우 외과 박흥규, 전용순, 최재봉 외상외과 김영민, 송한별 이비인후과 김동영 정형외과 박홍기, 백종민, 심재양, 이범구, 정규학 중양내과 김영생 피부과 박상현

간호본부 I 수술간호팀 곽효정, 이혜지 외래간호1팀 김지혜, 김향수, 박현주, 유예빈, 한주리, 황술 외래간호2팀 김혜영, 박향숙, 성기영, 윤영, 이지희, 최상기, 최인혜 입원간호1팀 강민혜, 권나영, 김기상, 김민지, 김유라, 심예지, 오지민, 윤미진, 이애진, 장소연, 정윤희, 최희숙 입원간호2팀 김다영, 김다현, 김민정, 김소연, 김숙한, 김영진, 김유빈, 김은미, 박승아, 박윤정, 박훈정, 선예지, 송민지, 안명희, 이다혜, 이수경, 이유나, 이지은, 이혜연, 임서윤, 최창순 입원간호3팀 강민아, 강지원, 고혜원, 권유진, 금호인, 김경숙, 김민경, 김혜경, 김혜경, 박은혜, 방수정, 손혜빈, 이수정, 이윤미, 이호석, 주득남 중환자간호팀 김다미, 김빛나, 김아름, 김혜진, 박나영, 박민호, 박지예, 정한솔 특수간호팀 강민지, 김상현, 남윤영, 노지혜, 이혜영, 최명숙 신경과 윤세영 혈액내과 김형선

진료지원/행정부 I 영상의학팀 신희수, 이준서 진단검사의학팀 이현진 콜센터 전하늘 외래원무팀 박소영 엔젤스테프 신현숙(병동)

문화일보

기획

munhwa.com



93세에도 두 세대 아래 청년들과 친밀한 소통 비결은
“‘학생은 왕’ 여기며 학교를 놀이판으로...
내가 더 설레더라”



문화일보 기사 전문 보기 ▶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인터뷰 장재선 부국장(전임기자)

학생들 보기만해도 예쁘고 좋아 이런 내마음 그대로 전해지는 듯 바이오·2차전자·반도체 집중 빅테크 인재공급 거점 만들고파

이길여 총장이 작년 5월 학교 축제에서 ‘말춤’을 추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그 춤사위는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이번 인터뷰에서 절감했다. 가천대 캠퍼스(경기 성남시)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학생들이 “와, 총장님이다!”라며 달려들어 놀랐다. 캠퍼스 광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몰려들어 이 총장을 에워쌌다. 그들은 마치 연예인을 만난 듯 신난 얼굴로 셀카를 함께 찍고 싶어 했고,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일일이 응대했다. 연초록이 올라오는 나무들처럼 싱그러운 청년 대학생들이 마냥 사랑스러운 모양이었다. 아호가 ‘가천(嘉泉·아름다운 샘)’인 교육자답게 그가 젊은 나무들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 어린 학생들과 여전히 잘 소통하시더라.
그들을 ‘홀리는’ 비법이 있다.

“그냥 좋아한다. 사랑스럽다. 축제나 졸업식에 가면 학생들이 달려들어, 환호성을 지르니 얼마나 예쁜가.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설렌다.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 아닐까. 캠퍼스에 ‘학생이 왕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학생은 항상 큰 꿈을 꾸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취지이다. 학교 전체를 학생들을 위한 놀이판 ‘fun 캠퍼스’로 가꾸고 있다.”

— 가천대 인기는 서울 인근이라는 위치도 작용할까.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가 너무 좋은데, 옛 경원대는 전국 100위권에 못 들었다. (지난 2012년 경원대와 가천의대 등을) 통합할 때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내가 그랬다. 이 좋은 자리에서 학교가 발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년 퇴임할 때 무슨 낮으로 학생들을 보려 하느냐. 그 이후 내가 교수들을 많이 괴롭혔다. 고맙게도 지금은 교수님들이 솔선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노력한다. 단식 투쟁하며 통합에 반대했던 교수들이 몇 년 전부터 퇴임하기 시작했는데, 떠나면서 그린다. 이런 학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그때 반대 안 했으면 5년 더 앞서갔다고 내가 농담을 한다(웃음).”

— 학교 발전전략의 하나가 ‘BBC’라고 하던데.

“BBC란 바이오(Bio), 2차전지(Battery), 반도체(Chip)를 의미한다. 세계 최초로 반도체 단과대학을 세웠다. 2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합치면 전국 대학 중 1위 규모이다. 작년 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특성화대학원 사업 선정 등으로 공인받았다. 우리 대학을 국내외 빅테크 기업 인재 공급의 파이프라인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다.”

—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만의 ‘국제대학’을 열었다. 1960년대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던 분으로서 감회가 컸을 텐데.

“정말 그랬다. 그 시절,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해외 유학을 간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다. 그런 내가 이제, 외국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다. 지난달 첫 입학생 580명을 맞았는데, 오는 9월 학기에 400여 명이 더 들어온다. 유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배우고 첨단

학문을 익히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태훈 길의료재단 의료원장과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과의 주말 콘퍼런스는 지속하시나.

“이어가고 있다. 둘은 조카 부부여서 가족인 동시에 가천길재단의 양대 축인 병원과 학교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이다. 보통 토요일 오후쯤,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한 후 차 한 잔을 나누며 시작했는데 콘퍼런스가 됐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시야로 미래를 바라볼지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정말 값지다.”

—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여성이 대학(서울 의대)에 진학하고 유학까지 갔다. 모친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신문을 빨리 받아들이신 듯싶다. 농사짓는 시골(옛 전북 옥구군 대야면)에서 검정 통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으셨다. 서울 이화여전 학생들이 그랬던 것을 어머니가 하신 거다. 가무를 좋아하셔서 뽕과 리 치는 것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혼자서 만주를 두 번이나 가셨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상하이에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훗날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 <중략>

”

정리

김지은 기자

